

광주 '느린학습자' 성장 돕는다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현장교사 교육 후 아동센터 40곳으로 파견...과목별 맞춤 학습

광주지역 '경제선 지능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남부대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지원단)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경제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와 정상 지능의 중간 지능 수준을 보이는 아동으로 지능지수(IQ)가 대략 75-85 정도에 속하는 아동을 말한다.

지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는 미흡해 통상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 때문에 느린학습자는 학습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평균적으로 느린학습자는 동일연령 아동 중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91.3%가 발달장애교부적응의 어려움에 처하고, 60.5%는 학습능력 수준에서도 하위 8%이하로 조사되는 등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느린학습자는 정서·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등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익숙하지 못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력 초기부터 교육·인지·정서·사회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원단은 느린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사전에 양성된 현장교사를 파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4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60명의 느린학습자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단은 우선 현장교사의 교육부터 시행한다. 현장교사들은 사업 초기에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연수 받은 뒤, 각 지역아동센터

로 파견된다. 이후 현장교사 1명이 4명의 느린학습자를 맡아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4시간, 주 5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지·학습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인지·학습 프로그램은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생각자람' 워크북 교구재를 활용해 기초국어, 수학 등의 학습을 주 2회(회당 45분) 지원한다. 고학년(4-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별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은 '마음나눔' 워크북 교구재와 동영상 활용을 통해 성장지도, 독서지도, 신체활동, 외부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 1회(회당 45분) 진행하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장은 "느린학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음해에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연결다리 야간 조감도.

<광주 북구청 제공>

한새봉~삼각산 잇는 '5.5km 숲길' 생긴다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조성사업' 착공...62m 연결다리 조성

그동안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광주시 북구 한새봉과 삼각산이 이어진다.

19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시민의 숲음길 2구간 조성사업' 착공식이 지난 18일 북구 일곡동 서일어린이공원에서 열렸다.

시민의 숲음길 사업은 단절된 생태통로 복원과 더불어 도시 전체를 한 번에 잇는 친환경 숲길(23.5km)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무등산 자락인 군왕봉에서부터 삼각산, 한새봉, 매곡산, 운암산, 영산강까지 연결다리가 설치된다.

이번 2구간 사업은 길이 62m, 폭 3m 규모의 연결다리와 5.5km 구간의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2구간 사업이 완료되면 앞서 조성된 1구간(8km)과 연계해 일곡동 한새봉과 삼각산 정상을 거쳐 국립 5·18민주묘지까지 13.5km 구간을 한번에 걸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숲음길 사업으로 1구간(문흥동-삼각산-국립5·18민주묘지)은 지난 2012년 완료됐다. 북구는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3구간(5km)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고 군왕봉과 삼각산을 잇는 4구간(5km)은 장기적으로 국가사업 반영에 노력해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기후정의 행진...기후정의 실현 광주지역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된 '923기후정의행진 광주참가단'은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후정의 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5대 요구안을 내세웠다. <광주환경연합 제공>

10년새 16곳서 51곳으로...광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급증

20~40대 발달장애인 가장 많아

최근 광주지역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철 전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장이 지난 15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과 변화' 발제문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올해 8월 기준 51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장애인 204명 정원에 현원 196명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에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운영하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중심 거주시설"을 말한다.

연령대로 보면 20세 미만 12명(6.1%), 20대 78명(39.8%), 30대 51명(26.0%), 40대 23명(11.7%), 50대

23명(11.7%), 60대 이상 9명(4.7%)으로 20~40대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황 전 관장의 설명이다.

이용중인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이 186명(94.9%)이며, 158명(80.6%)이 심한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시각, 청각, 정신, 지체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인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자 유무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있는 이용인은 164명(84.1%), 보호자가 없는 이용인은 31명(15.9%)이었으나 현재 그룹홈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중 많은 사람이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그룹홈으로 거주를 옮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도 실제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타시설에 입소돼 있거나 고령, 장애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룹홈에 있는 장애인들은 낮에는 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업(대학, 전공과)중인 이용인과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으며 고령장애인의 경우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그룹홈은 2010년 16곳이었지만 2023년 현재 51곳으로 3.1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그룹홈 증가(2010년 589곳→2022년 751곳)세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그룹홈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황 전 관장의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인 그룹홈 운영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룹홈의 종사자 처우 및 예산지원의 현실화, 그룹홈 자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운영지침의 현실화 등이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에 나선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석 연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기간을 3단계(전·중·후)로 구분해 사전 홍보와 점검, 순찰, 기술지원 순으로 추진된다.

연휴기간 전(9월 21일-9월 27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78개소에 특별감시 계획을 포함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연휴기간 중(9월 28일-10월 3일)에는 환경

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수질오염 우려사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후(10월 4일-10월 6일)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체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기술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410-5762)에 신청하면 된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감시 기간동안 사업장 점검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녹색기업' 2곳...매년 감소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의 '녹색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선정한 녹색기업 수는 2곳이다.

녹색기업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기업으로 환경친화적이고 환경보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가는 기업으로 저탄소 배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저

너지 활용, 오염 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실천해 나가는 곳이다. 환경부 산하 전국 7개 유역환경청이 매년 녹색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영산강청은 지난 2017년 27곳의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점차 감소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2곳의 기업만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전국에서 97개의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영산강청 관할 내 기업이 가장 적게 선정된 것이다.

/김다민 기자 kdi@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